

결 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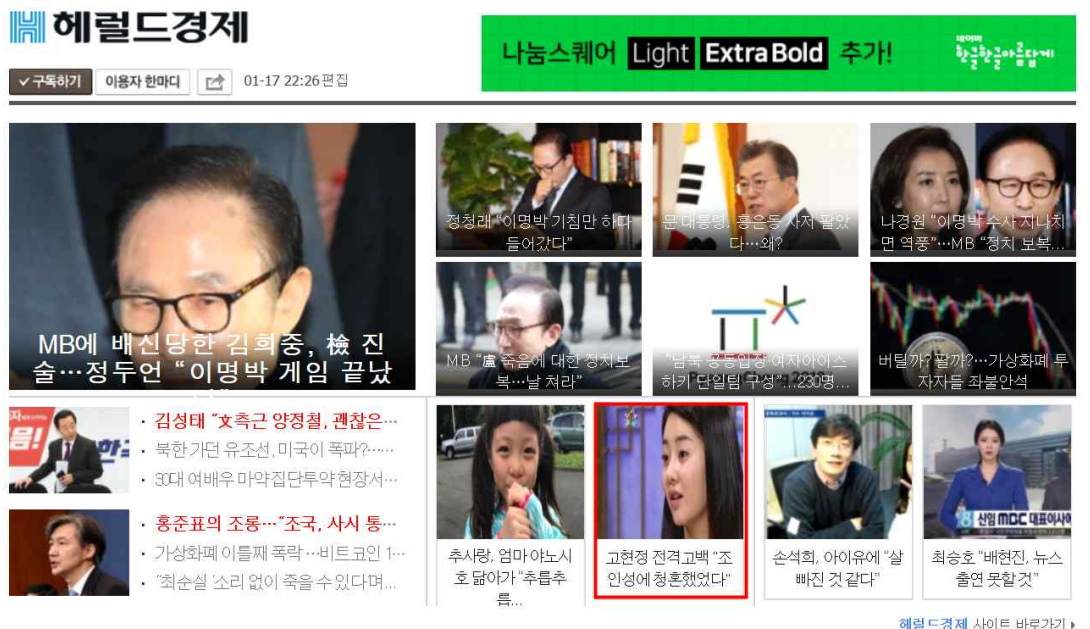
2018 - 3062 신문윤리강령 위반
헤럴드경제 발행인 권충원

주 문

헤럴드경제(biz.heraldcorp.com) 2018년 1월 18일자 「고현정 전격고백 “조인성에 청혼했었다”」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1.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<캡처시각 18. 1. 18. 06:27>

『고현정, 조인성에 청혼했다가 거절당했다고?』

기사입력 2018-01-17 08:03

[헤럴드경제=이슈섹션] SBS 새드라마 ‘리턴’으로 돌아오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

는 고현정이 과거 ‘황금어장-무릎팍도사’에 출연해 한 말이 새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.

고현정은 당시 방송에서 고현정은 SBS 드라마 ‘봄날’에 함께 출연했던 조인성에게 청혼했었다고 밝혔다.

이어 그는 “농담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”라고 말했다.

또한 고현정은 “내가 조인성에게 ‘결혼하자’라고 했더니 조인성이 ‘쉬운 여자는 싫다’고 말했다”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.

onlinenews@heraldcorp.com」

<http://biz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80117000038&ACE_SEARCH=1>

※참고



[고현정, 조인성에 청혼했다가 거절당했다고?](#)

헤럴드경제 | 1일 전 | 네이버뉴스 | [🔗](#)

‘황금어장-무릎팍도사’에 출연해 한 말이 새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. 고현정은 당시 방송에서 고현정은 SBS 드라마 ‘봄날’에 함께 출연했던 조인성에게 청혼했었다고 밝혔다. [사진=헤럴드경제DB] 이어...

[‘디마프’ 고현정, “과거 조인성에 청혼...거절당했다” 고백](#)

헤럴드경제 | 2016.05.04. | 네이버뉴스 | [🔗](#)

[헤럴드경제] 고현정이 tvN ‘디어 마이 프렌즈’에서 조인성과 10년 만에 멜로호흡을 맞춰 화제인... 과거 고현정은 MBC ‘황금어장-무릎팍도사’에 출연해 조인성 등 남자 스타와의 스캔들에 대해서도 거침없는...



[최지우 조인성 차태현 모범납세자, 고현정이 조인성에게 부탁하는 딱 한 가지...](#)

헤럴드경제 | 2016.01.02. | 네이버뉴스 | [🔗](#)

헤럴드 리뉴스타=김수형 기자) 최지우 조인성 차태현이 모범납세자 후보에 올라 화제인 가운데 과거 고현정과 조인성의 관계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. 지난 2009년 방송된 MBC ‘황금어장’의 ‘무릎팍도사’...



[‘현정의 틈’ 고현정 “결혼하자”는 말에 조인성 “쉬운 여자 싫다”](#)

헤럴드경제 | 2015.12.16. | 네이버뉴스 | [🔗](#)

[헤럴드경제] ‘현정의 틈’ 고현정 “결혼하자”는 말에 조인성 “쉬운 여자 싫다” 배우 고현정과... 고현정은 과거 MBC ‘황금어장-무릎팍도사’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. [사진...]



[고현정 “조인성에 청혼했더니 ‘쉬운여자 싫다더라’” 과거 발언 눈길](#)

헤럴드경제 | 2015.07.11. | 네이버뉴스 | [🔗](#)

[헤럴드경제] 배우 고현정과 조인성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조인성에게 청혼을 했다 거절당했다던... 사진: MBC ‘황금어장-무릎팍도사’ 캡처 한편 두 사람은 최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(SNS) 상에 일본 공항에서 함께...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기사는 배우 고현정이 새 드라마 ‘리턴’으로 돌아온 것을 계기로 그가 과거에 동료배우 조인성에게 청혼했다고 밝힌 사실을 재론하고 있다. 기사에는 ‘청혼’

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, 검색해 보면 2009년 1월 MBC 프로그램 ‘황금어장-무릎팍 도사’에 나와 한 말이다.

그런데도 뜬금없이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 기사로 올린 데다 제목도 ‘전격 고백’이라 붙여 새 뉴스인 듯이 포장하였다.

게다가 헤럴드경제가 이 내용을 처음 다룬 것이 아니다.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같은 내용을 2015년 7월 11일 이후 다섯 차례 썼다. 전형적인 어뷰징 사례라 하겠다.

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⑨(부당한 재전송 금지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송 호	정송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⑨(부당한 재전송 금지) 언론인은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된다.